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하기 위한 변혁의 길

사회 전반의 난제 극복을 위한 대안 담은 책들 눈길

우리는 한동안 거품의 옷을 걸치고 축제를 벌였다. 너무 선부르게 축배를 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환희의 노래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한파에 휩싸인 지금 여기저기에서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변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선택의 길이 없는 상황에서 변화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서점가에는 사회변혁을 위한 진단과 제안을 담은 책들이 소리없는 외침을 들려주고 있다. 철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경제상식, 시스템 부재 지적

경제운영의 부실이 국가적 파국을 몰고온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운영의 부실로 정부재정은 고갈되었고 기업은 속속 도산했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러한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는 실정이다.

《당신의 상식, 뒤집어야 살 수 있다》(김영사)를 펴낸 공병호(자유기업센터 소장)씨는 아픔을 겪게 된 까닭을 잘못된 경제상식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산품을 쓰자, 국민기업만은 살려야 한다는 식의 일반적 상식이 잘못된 경제개념이며, 위기 극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외부압력에 의한 시장개방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이 완전 자유경쟁 체제로 돌입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이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생직장의 신화 또한 깨져야 하며, 국가경영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공무원도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식 탈피를 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잘못된 상식이 선부른 대응책을 낳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능력과 소유까지 평등화시키는 평등주의,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는 가족주의, 우리 것만은 지키자는 폐쇄주의 등이 아픔을 연장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이상 패거리식 한국인은 없다는 그는 스스로 IMF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위기의 원인은 무능과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반성하고 변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변혁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사회체제의 시스템을 바로잡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개조 35제》(21세기북스)를 펴낸 지만원(시스템연구소 소장)씨는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력과 사회조직이 연관된 분야를 과감히 개조할 것과 청와대, 정부, 군, 재벌, 중소기업, 노동자까지 인적구성원에 대한 가치창조를 위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위기의 원인을 시스템 부재의 산물로 보는 저자는 먼저 무능한 인선 방법을 절타하고 있다. 재무팀과 기획팀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재경원을 만든 장본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음을 거론하며 인력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조직과 정치조직에 대한 개혁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득 60%를 기용없이 탕진하고 있는 정부가 선진국처럼 20%선으로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공직의 70% 이상을 정리해고하는 행정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 속의 적자생존을 위해 시장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금융기관의 독립,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에 합당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치창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 제품의 이미지 제고, 벤처기업의 육성, 국민생명 보호 시스템 구축, 정보생산 및 사용능력 제고 등을 역설하고 있다.

남북의 공생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정상모 지음, 한겨레신문사)도 있다. 동서간의 냉전이 끝났음에도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희생양인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요원한 숙제로 남아 있다. 남쪽은 구제금융의 '구치'를 당하고 북쪽은 식량을 구걸하는 실정이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력의 소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력을 앞세운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민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비극을 몰고온 현대사적 배경과 사건들을 모두 더하는 끝에 남북한의 공생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태도와 역대 정권들이 권력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했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따른 북한의 현실과 전망, 평화체제와 4자 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현실과 극복방안 등도 조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경제의 실상과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거론하며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한다. 남북이 소모적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39가지 개혁 과제》(참여사회연구소 엮음, 푸른숲)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경제적 패권주의의 전략으로도 새겨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위한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경제체제의 개혁과 세계화를 위한 기업구조·노사·금융·조세체도의 개혁, 시민의식 개혁과 맑은 사회 만들기, 복지와 환경정책의 개혁과제, 탈냉전과 통일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과 집행구조의 혁신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국민정신의 틀을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은 절대적 희망

변화와 개혁이 절대적 희망으로 대두되고 있다. 당면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변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특히, 사회적 권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계층의 적극적인 변혁이 요구된다. 공병호씨는 자신을 "한국경제를 진단하지 못한 경제학자로서 스스로 정리해고를 당해야 하는 일순위"로 꼽았다. 근궁한 사회로 돌아가는 데 공조한 개인 역시 같은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혁은 현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노력이다.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김대환 교수(인하대)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며, 개혁은 새로운 천년을 위한 바로잡기"라고 역설하고 있다. 도식과 관습, 잘못된 사고와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오완진 기자